한국판 뉴딜, 디지털 경제 활성화



글 IDC Korea 이태우 전무

한국판 뉴딜, 디지털 경제 활성화

정부는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한국판 뉴딜 대표사업에 오는 2025년까지 160조원의 자금을 투입해 1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청사진이다. 한국판 뉴딜의 큰 축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3가지이다.

한국판 뉴딜 총 투자계획 및 일자리 창출

총 투자계획 단위 : 총 사업비(국비), 조원

구분	2020년 추경~2022년	2020년 추경~2025년
합계	67.7 (49.0)	160.0 (114.1)
①디지털 뉴딜	23.4 (18.6)	58.2 (44.8)
②그린 뉴딜	32.5 (19.6)	73.4 (42.7)
③안전망 강화	11.8 (10.8)	28.4 (26.6)

일자리 창출 단위 : 일자리, 만 개

구분	2020년 추경~2022년	2020년 추경~2025년
합계	88.7	190.1
①디지털 뉴딜	39.0	90.3
②그린 뉴딜	31.9	65.9
③안전망 강화	17.8	33.9

※2020년 추경~2025년 총 사업비 160.0조원(국비 114.1조원, 지방비 25.2조원, 민간 20.7조원)

출처 : 기획재정부

> 경제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 촉진 · 확산을 위해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댐' 등 대규모 ICT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 · 개방 · 활용을 확대한다.

이 중에서 디지털 뉴딜 사업은 2025년까지 총 사업비 58.2조원을 투자하여 단기적으로는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을 선도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제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 촉진·확산을 위해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댐' 등 대규모 ICT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개방·활용을 확대한다.

디지털 뉴딜의 목표와 추진과제

디지털 뉴딜은 크게 4가지 분야 12개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4가지 분야는 ①D.N.A.(Data, Network, AI) 생태계 강화 ②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③비대면 산업육성 ④SOC 디지털화이다.

D.N.A 생태계 사업은 디지털 신제품·서비스 창출 및 국가 경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전 산업의 데이터·5G·AI 활용/융합의 가속화를 목표로 한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38.5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56.7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4개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①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②1·2·3차 全 산업 5G·AI 융합 확산 ③5G·AI 기반 지능형 정부 ④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이다.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사업은 전국 초중고·대학·직업훈련기관의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 기반 구축 및 교육 콘텐츠 확충을 추진, 2025년까지 총사업비 1.3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0.9만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①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②전국 대학·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2개의 과제를 추진한다.

비대면 산업 육성은 의료, 근무, 비즈니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통해 관련 비대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2.5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13.4만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①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②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③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을 추진과제로 실행한다.

마지막으로 SOC의 디지털화는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생활을 위한 SOC 핵심 인프라의 디지털화, 도시·산단·물류 등의 스마트화로 연관산업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5.8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3만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①4대 분야(교통,디지털 트윈,수자원,재난대응)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②도시·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③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이 과제로 추진된다.



> “빅데이터 수집 · 가공 · 거래 · 활용기반을 강화해 디지털 경제를 가속화하고 5G 전국망을 통한 전 산업의 5G · AI 융합 확산이 ‘데이터 댐’의 목표다.”

디지털 뉴딜 추경 세부내역을 통해 본 IT산업 전망

2020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 35.1조원 중에 한국판 뉴딜 사업에는 4.8조원이 확정되었고 이 중 디지털 뉴딜 사업은 2.6조원이다. 디지털 뉴딜 사업의 약 절반인 1.3조원이 D.N.A 생태계 강화 과제에, 비대면 서비스·산업 육성에 7천5백억원, SOC 디지털화에 4천5백억원이 각각 투자된다.

디지털 뉴딜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과제는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생태계, ‘데이터 댐’을 구축하는 것이다. 데이터 댐이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가공하여 쓸모 있는 정보로 재구성한 집합 시스템을 가리킨다. 빅데이터 수집·가공·거래·활용기반을 강화해 디지털 경제를 가속화하고 5G 전국망을 통한 전 산업의 5G·AI 융합 확산이 ‘데이터 댐’의 목표다.

디지털 뉴딜 3회 추경예산 세부내역

구분	예산	목표, 방향 및 세부안
디지털 뉴딜	2.6조원	2022년까지 총 13.4조원 투자
DNA 생태계 강화	1.3조원	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데이터 개방, 5G·AI 활용 가속화 및 디지털 인재양성 등 지원
①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0.54조원	•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10→15개 분야), 공공 데이터(14만 개) 순차 개방, AI 학습용 데이터 '22년까지 700종(추경 150종) 구축 등
② 5G 국가망·클라우드	0.05조원	• 5G 국가망 시범사업 실시(추경 5개), 공공부문 클라우드 기반 전환, 5대 핵심 서비스·산업 공동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등
③ 5G·AI 융합	0.66조원	• AI-X 7대 프로젝트, 중소기업 AI 솔루션 이용 바우처(14→200건), 5G 융합 선도모델 개발(매년 5개), 스마트대한민국펀드 1조원 조성 등
④ 인재양성	0.04조원	• AI·SW 분야 전문 인력 94만 명(추경+1,245명), AI 융합인재 0.6만 명(추경+1,800명) 등 2020~2022년간 AI·SW 핵심인재 10만 명 양상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0.13조원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 혜택을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환경 구축
⑤ 디지털 포용	0.1조원	•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1,300곳(추경 650곳) 및 공공장소 WiFi 1만 개 설치, 읍면동 주민센터에 디지털 교육센터 1천 개소 신규 운영 등
⑥ K-사이버 방역 체계	0.03조원	• 중소기업 2,500개(추경 300개) 보안 컨설팅 지원, 철도·항공 등 150종 안전 관련 정보시스템 보안 점검 등
비대면 서비스·산업 육성	0.75조원	초중고교 원격 교육 인프라, 중소기업 원격근무시스템 등 비대면 산업 육성
⑦ 초중고 디지털 기반 교육	0.25조원	• 전국 20만 개 초중고 교실 WiFi 망 구축, 내용 연수 초과 노트북 20만 대 교체, 디지털 교과서 시범학교 태블릿 24만 대(추경 8만 대) 보급 등
⑧ 대학 등 온라인 교육 강화	0.06조원	• 39개 국립대 노후서버·네트워크 전면 교체 10개 권역별 미래교육센터·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 등
⑨ 감염병·돌봄 디지털화	0.12조원	•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추경 500개소) 설치, 모바일·웨어러블 기기 활용 및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30만 명(추경 8만 명) 등
⑩ 원격 근무 인프라	0.31조원	• 중소기업 16만 개(추경 8만 개) 원격근무시스템 이용 바우처 지원, 공동활용 화상회의 인프라 1,562개소 구축 등
SOC 디지털화	0.45조원	4대 핵심 기반시설 및 도시·산단·물류 디지털화로 스마트한 국민생활 지원
⑪ 4대 디지털 안전관리 체계	0.41조원	• 주요 간선도로 및 철도 디지털화, 국가하천 원격수문제어시스템,
⑫ 도시·산단·물류 스마트화	0.03조원	• 인구 20만 이상 도시(108개) 통합관제플랫폼 구축, 스마트산단 통합관제센터(2개소),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4개소(추경 2개소) 등

출처 : 금융위원회

데이터 구축·개방·활용에 5천4백억원을 투자하여, 빅데이터 플랫폼을 15개 분야로 확대하고 공공 데이터 14만 개의 순차 개방, AI 학습용 데이터를 700종을 2022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네트워크 관점에서는 5G망 조기구축을 위한 등록면허세 감면·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실감기술(VR·AR 등)을 적용한 교육·관광·문화 등 디지털 콘텐츠 및 자율차 주행기술 등 5G 융합서비스를 개발한다. 또한 5대 핵심 서비스 산업에 대한 '공동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각종 솔루션들은 정부기관이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망을 5G와 클라우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5개 기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전 부처로 확대된다.

5G와 AI융합에 6천6백억원이 투자된다. 스마트공장 1만2000개, 미세먼지 실내정화 등 AI 홈서비스 17종 보급, 생활밀접 분야 'AI+X 7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7대 프로젝트에는 신종감염병 예후·예측, 의료영상 판독·진료, 범죄 예방·대응, 불법 복제품 판독, 지역특화산업 품질관리 등이 포함돼 있다.

비대면 산업육성을 위해 먼저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를 구축한다. 감염병 위험에서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편의를 제고하는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만성질환자,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빈틈없는 건강관리를 위해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에도 나선다. 비용부담, 경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원격근무 인프라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밀집한 지식산업센터, 창업보육센터, 테크노파크 등 전국 주요거점에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화상회의실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기존 원격근무에 첨단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 일하는 공간 및 방식을 혁신하는 '디지털 워크'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디지털 뉴딜은 기존 민간기업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주요 인프라들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확대·구축하고, 민간기업과 개개인은 이를 기반으로 창의적인 개발·연구 활동을 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번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19로 가속화되고 있는 사회·산업·개인의 디지털화 물결을 뒷받침할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IT산업 관점에서는 데이터·인공지능 등의 데이터 관리·분석, 5G·초고속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 기술, 디지털 기반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비대면 문화·재택 근무를 지원하는 화상회의 기술 등의 협업 솔루션, 그리고 사이버 보안 등의 IT산업이 성장할 전망이다.

디지털 뉴딜에 따른 금융 IT산업 전망

금융산업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데이터 구축·개방·활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3법의 통과는 데이터 수집과 거래를 활성화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데이터 부문의 활성화 요인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부문과 맞물려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제공할 것이다. 공공데이터의 공개가 금융회사의 고객이해 역량을 높일 수도 있지만, 반면에 핀테크와 같은 비금융회사의 금융서비스 진출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디지털 뉴딜은 금융회사의 데이터 통합역량과 지능형 분석역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그동안 가장 보수적이었던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기반 전환은 제도적 변화와 맞물려 금융산업의 클라우드 도입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비대면 채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코로나 사태를 악용한 보이스 피싱 및 금융 사기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AI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의 개방·공유로 인한 데이터 침해 등에 대비한 사이버 보안에 대한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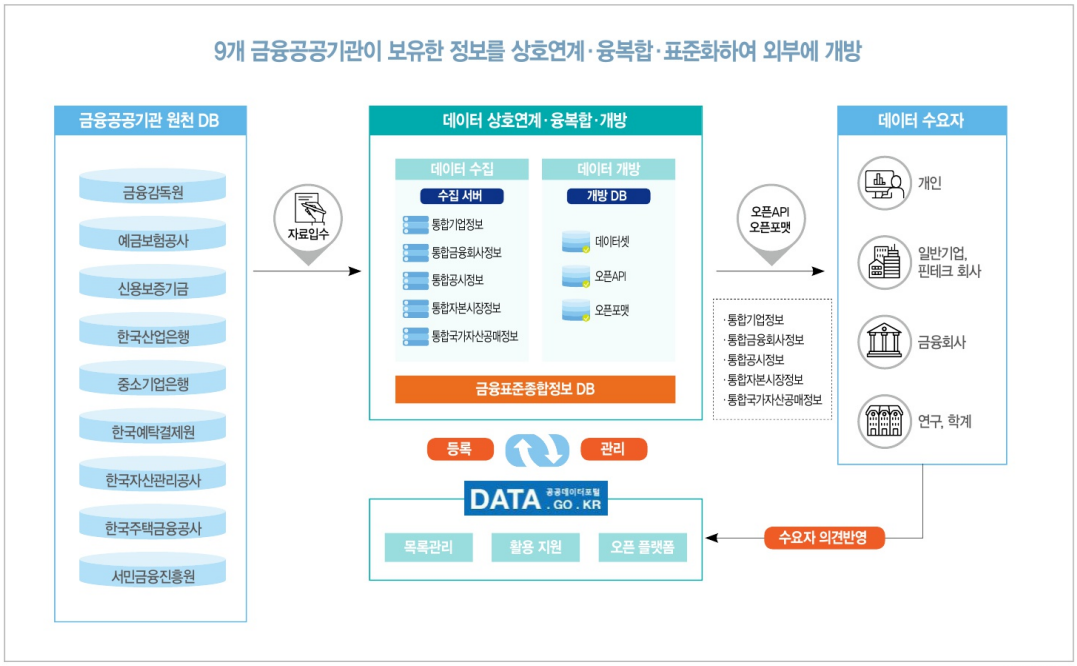
"디지털 뉴딜은 기존 민간기업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금융공공데이터의 구체적 내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9일부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없었던 비상장법인정보 58만 건을 무료로 공개했다.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4,450만 건도 무료로 개방되었다.

금융공공데이터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9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이다. 기업과 금융회사, 통합공시, 자본시장, 국가자산공매 등 5개 핵심분야의 테마정보, 50개 서비스, 5,50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표준종합정보DB 체계도



출처 : 금융위원회

공개된 금융공공데이터는 오픈 API 형태로 외부에 개방되고 있다. 신용정보업체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금융공공데이터를 손쉽게 통합분석하여 새로운 분석모델 개발 등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핀테크 업체의 경우 비외감법인 통합공시정보 등을 활용해 기업 재무현황을 파악하고 영업기회 발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기존에는 서비스 개발과정에서 CB사를 통해 필요 데이터 전량을 유료로 구매하였으나, 무료로 제공되는 금융공공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연구기관금융부문 공공데이터 개방은 데이터 3법 통과에 따른 가명정보처리, 빅데이터 시장 출현, 공공·민간부문의 이종 데이터 결합 등 데이터 경제시대 도래에 있어 금융공공데이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픈API

금융공공데이터 종류	세부 내용
통합기업정보	법인번호를 기준으로 기본정보, 지배구조정보, 재무정보로 구분하여 통합기업정보를 제공하며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기업 정보(국내최초 무료개방)를 제공한다. 신용정보회사 등 외부기관을 통한 데이터의 구매 없이 기업분석, 신용리스크 분석 등 다양한 업무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통합금융회사정보	금융회사(은행, 보험, 증권, 카드, 저축은행 등)에 대한 정보로 법인번호 기준으로 기본정보, 계열회사 정보, 재무정보 등을 제공한다. 금융회사와 관련한 다양한 업무활동(재무구조 및 리스크 분석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통합공시정보	금융감독원이 공시하고 있는 기업의 정보를,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추출하여 영업현황, 유가증권 현황 등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 한다. 특히,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체계화 되어있는 금융공공데이터 특성상 통합공시정보를 기준으로 다른 분야 테마정보(통합기업정보, 통합자본시장정보 등)와 다양한 결합 및 응용이 가능하다.
통합자본시장정보	유가증권 및 모기지론증권의 발행 정보, 이자 및 배당 정보 등 관련정보를 법인번호 기준으로 융복합 후 제공한다. 통합자본시장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등 거래 시 의사결정 등에 유용한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통합국가자산공매정보	법인번호를 기준으로 국유재산 정보 및 공개재산·대부매각자산·공매자산 등 상세 정보가 제공되며, 국유재산 활용 극대화를 위한 영업정보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

출처 : 금융위원회



> 2020년 하반기에는 융합신산업 연구 촉진을 목적으로 CreDB 신용정보와 타 기관의 금융 · 비금융정보(통신,유통 등)를 결합한 융합 DB를 구축할 예정이다.

신용정보원과 금융결제원의 빅데이터 개방 확대

아울러 신용정보원 CreDB와 금융결제원 빅데이터가 단계적으로 개방되고 있다. 2020년 7월 1일, 보험정보 활용 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CreDB에 있는 보험가입·해지내역, 담보내역 등의 보험표본 DB를 개방하였다.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약 5,200만 명의 보험계약·담보정보를 샘플링 후 비식별 처리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2020년 7월 1일부터 보험 DB 이용을 신청 받아, 심사 후 선정된 회사(연구자)에게 8월 중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2020년 하반기에는 융합신산업 연구 촉진을 목적으로 CreDB 신용정보와 타 기관의 금융·비금융정보(통신,유통 등)를 결합한 융합 DB를 구축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타 공공부문의 빅데이터 센터 등과도 협업하여 공공부문 간 데이터가 결합된 융합 DB 구축도 추진한다.

계좌이체, 전자결제, 전자어음거래, 공인인증 등 대량의 금융결제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결제원도 핀테크 기업, 창업 기업 등의 금융결제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 지원을 위해 금융결제정보 빅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금융정보원의 데이터는 금융결제원과 금융회사 간 공동협약에 따라 설계되어 처리하는 데이터로 정형화되어 분석·활용이 용이하고, 은행 간 금융거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개별 금융회사가 자체 보유한 데이터만으로 분석이 어려운 서비스 이용패턴 및 자금흐름 분석에 효용가치가 높다.

금융결제원 빅데이터 활용의 점진적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2020년 하반기부터 ①분석 ②개방 ③결합의 3단계 로드맵으로 추진한다. 1단계는 비식별 처리된 데이터를 금융회사 내부업무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2단계는 결제정보 개방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결제 정보를 대외 개방하며, 3단계는 금융결제원이 금융회사, 핀테크, 일반기업의 데이터를 받아 금융결제정보와 결합하여 가명·익명정보 형태로 제공하게 된다.

금융위, 금융 빅데이터 5대 인프라 구축 계획

금융위원회는 CreDB, 데이터 거래소, 공공데이터 개방, 데이터 전문기관, 금융결제원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금융 빅데이터 5대 인프라'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언택트 서비스 등 '디지털 경제' 시대의 혁신산업 성장과 창업·핀테크 기업 등의 아이디어 활성화를 지원하고, 새로운 부가가치 및 양질의 디지털 일자리를 창출하는 디지털 뉴딜을 위한 금융분야 데이터 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디지털 뉴딜을 통해 기대되는 전망

디지털 뉴딜은 기업이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으로 혁신하는 것처럼, 국가를 디지털 전환하는 혁신 프로젝트이다. 일자리 창출은 목적이 아니라 혁신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이 혁신은 누구도 멈출 수 없는 '디지털 경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선도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여정이다.

이번 디지털 뉴딜이 가져올 가장 큰 기대효과는 데이터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여 그 활용도를 높이게 된다는 점이다. 데이터 3법 시행을 계기로 금융공공데이터의 개방에 의료·환경·공공데이터 개방이 이어진다면, 산업간의 융복합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다. 아울러 양질의 데이터가 핵심인 AI서비스가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실질적인 AI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 스타트업, 1인 개발자 등에 의한 새로운 사업기회가 창출되어 그동안 대기업 중심의 전통적인 '굴뚝경제'가 자연스럽게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디지털 뉴딜은 5G 네트워크의 확대를 통해 디지털 경제 흐름을 빠르게 연결하는 사물 인터넷(IoT)시대를 앞당기게 될 것이며, 네트워크의 연결성 확대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기업, 기업과 기업의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하여 생산성과 창조성이 높아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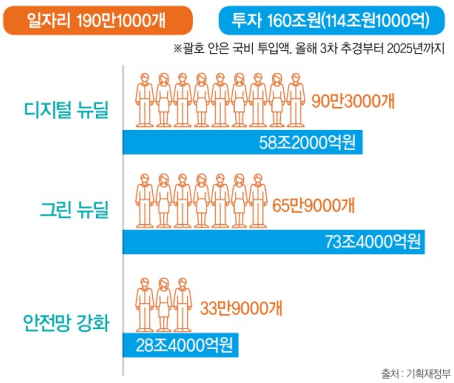
비대면 솔루션, 클라우드, 보안 등 기반 기술에의 투자 확대는 외국기업에의 기술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전문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 측면에서는 공공부문의 서비스가 개선되어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고 이는 금융, 의료, 교육, 제조, 통신 등의 산업을 동반 성장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기대가 현실로 나타나려면, 디지털 뉴딜이 단순한 재정투자가 아니라 '디지털 경제'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구체적인 '콘텐츠'가 있어야 하고, 이 콘텐츠들 간의 연관성을 고려한 정책실행 및 성과관리방안이 중요하다. 단기적인 성과창출보다는 '과정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정책자문단에 각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음 페이지에서 '디지털 뉴딜' 관련 인포그래픽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Infographics 디지털 뉴딜 관련 자료 한눈에 보기

한국판 뉴딜 일자리 창출 및 투자 계획



디지털 뉴딜 5대 대표사업

 # 지능형(AI)정부
5G·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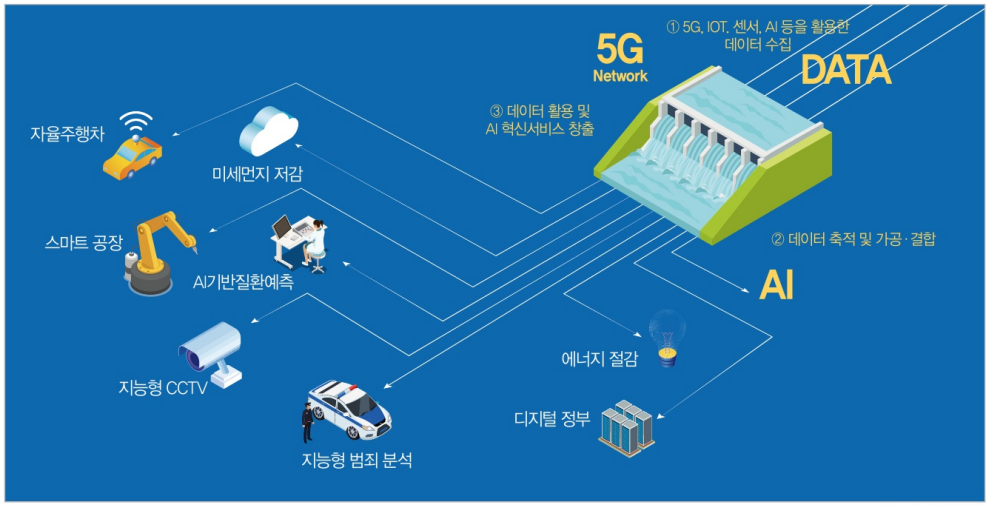
 # 스마트 의료 인프라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 의료인프라를 구축

 # 데이터 댐
데이터 수집·가공·거래·활용 기반을 강화하여 전산업의 5세대 이동통신(5G)·인공지능(AI) 융합을 확산

 # SOC 디지털화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해 핵심기반 시설을 디지털화하고 효율적 재난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마련

 # 디지털 트윈
자율자동차, 드론 등 신산업 기반 마련, 안전한 국토·시설 관리를 위해 시뮬레이션 현실 분석·예측

D.N.A 생태계, 데이터 댐 개념도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뉴딜 주요 사업 계획

성과지표	2020년	2022년	2025년
공공데이터 개방	4만9000개 개방	14만 2000개 개방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제고
데이터시장 규모	16조 8000억원	30조원	43조원
AI 전문기업	56개	100개	150개
초중고 WiFi	14.8%	100%	100%
스마트 병원	기반 미흡	9개 구축	18개 구축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	고속국도 85km(2.0%)	고속국도 2085km(51.2%)	고속국도 4075km(100.0%)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 주요 서비스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 주요 서비스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6.3기준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활용사례

신용정보업체 활용사례	•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금융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용정보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와의 비교를 통해 정합성 확인 • 기존보유·신규 데이터와 금융공공데이터의 손쉬운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분석모델 개발 등 시너지효과 창출 가능
핀테크업체 활용사례	• 통합기업정보(비외감법인 정보)·통합공시정보 등을 활용하여 기업 재무현황 파악 및 영업기회 발굴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기존에는 서비스 개발과정에서 CB사에서 필요 데이터 전량을 유료로 구매하였으나 무료로 제공되는 금융공공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예정
연구기관 활용사례	• KDI의 경우, 기업자금조달 비용 관련 연구와 관련하여 금융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적극 활용 예정 • 금융공공데이터를 통해 금융기관 통계정보, 공시정보 등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 예정

출처 : 금융위원회

금융공공데이터 핵심 분야 테마별 상세

①통합기본정보: 기본정보, 지배구조정보, 재무정보 등 기업정보 제공

현황

금융감독원
공시서류, 사업보고서 및 재무정보 등은 PDF 또는 TXT 파일로 제공, 기업개황만 API로 제공

신보
기업분석현황, 투자기업정보 등 단순 기업정보 또는 통계 정보를 파일로 제공

개선사항

법인번호를 기준정보로 하여 기본정보(기업개요, 계열회사 등), 지배구조정보(주주정보, 대표이사정보, 임원정보 등), 재무정보(재무제표, 요약재무제표)로 구분하여 통합기업정보 제공

금감원, 산은, 기은, 신보 등이 보유한 외감, 비외감 법인정보를 융복합 및 표준화하여 오픈 API로 제공

②통합금융회사정보: 기본정보, 계열회사정보, 통계정보 등 금융회사정보 제공

현황

금융통계정보, 부보정보, 금융회사별 보증발행 정보 등을 자체사이트 또는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제공 중이나 타 기관과의 연계없이 단순조회 형태로 공개

개선사항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보유중인 금융회사의 기본정보, 재무정보 및 통계정보,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정보를 상호연계 및 융복합 후 오픈 API로 제공

③통합공시정보: 전자공시시스템(DART) 정보를 상호연계, 영업현황, 유가증권정보

– 금융감독원이 공시하고 있는 기업의 정보를,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추출하여 영업현황, 유가증권현황 등의 상세 정보를 제공

–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체계화 되어 있는 금융공공데이터 특성상 통합공시정보를 기준으로 다른 분야 테마정보 (예: 통합기업정보)와 다양하게 결합하여 활용 가능

④통합자본시장정보: 유가증권 발행정보, 거래정보 등 자본시장정보 제공

현황

예탁결제원
채권정보, 주식정보, 파생결합 증권정보 및 국제거래 등의 정보를 웹사이트 조회 및 파일을 다운로드 형태로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 공시정보, 발행계획, 증권별 세부사항 등을 파일 형태로 제공

개선사항

유가증권종목을 기준으로 제공되던 정보를 법인번호를 기준정보로 하여 유가증권 종류별 발행정보, 거래정보 등을 상호연계 및 융복합 후 오픈 API로 제공

⑤통합국가자산공매정보: 국유재산 정보 및 공매자산 정보 등 국가자산정보

현황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일반재산물건, 공유일반재산물건, 불용품 정보 등을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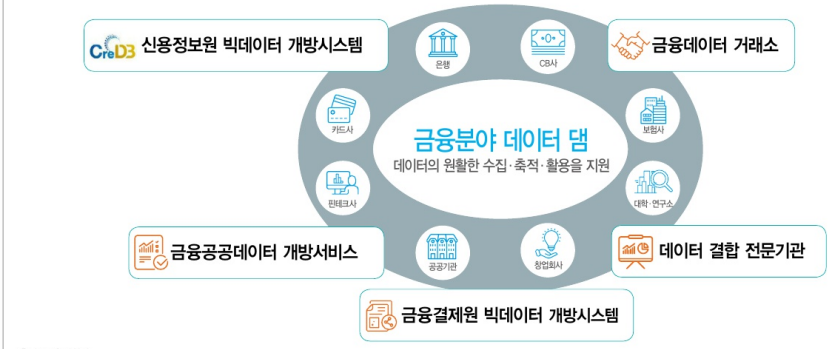
예금보험공사
주택저당증권 공시정보, 발행계획, 증권별 세부사항 등을 파일 형태로 제공

개선사항

법인번호 등을 기준정보로 하여 국유재산 정보 및 고객거래 정보를 제공

국가자산의 공개재산, 대출매각자산 내역 및 공매자산 내역 등 상세 정보를 상호연계 및 융복합 후 표준화된 오픈 API 형태로 개방

금융 빅데이터 5대 인프라 체계도



출처 : 금융위원회

정부가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한국판 뉴딜 대표사업에 오는

2025년까지 160조원의 자금을 투입해 1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청사진이다. 한국판 뉴딜의 큰 축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3가지이다

* 저작권법에 의하여 해당 콘텐츠는 코스콤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콘텐츠는 사전 동의없이 2차 가공 및 영리적인 이용을 금합니다.

코스콤 큐레이션 박스 #한국판 뉴딜

*. [오피니언] 데이터3법 개정안과 DID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대안 기술

*. [카드뉴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 이코노미와 금융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 [코스콤 리포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 이코노미가 가져온 금융권의 변화